

일본 국민성과 경어

: 하가야이치(芳賀矢一)의 『國民性十論』을 중심으로

백은주 _ 연세대학교 비교사회문화연구소 전문연구원

목 차

- I. 머리말
- II. 『國民性十論』(1907) - 충효의 일치
- III. '번옥(繁縟)'에서 '경신(敬神)'의 경어로
- IV. 예절작법의 교육과 경어
- V. 맺음말

국문초록

일본 국문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하가 아이치(芳賀矢一)는 그의 저서 『國民性十論』(1907)에서 일본인이 전통적으로 중시해 온 예법, 그 중에서도 특히 경어의 관습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만세불역의 황통에 기초한 국체를 떠받치는 중심축의 하나로 하가는 충효일치 사상과 이에 접맥되어 있는 경어사용 전통에 주목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하가는 경어의 기원을 고대 역사서 『古事記』에 표현되어 있는 다양한 신의 경칭에서 찾으며, 이로부터 시작된 경어 사용의 관습이 천황으로부터 점차 일반 국민에게 전파되었다고 주장한다. 천황제에 접맥되어 있는 하가의 경어 이론은 그가 개정을 주도한 『尋常小学讀本』의 언어사용 용례에 풍부하게 반영되었다. 하가는 일본 국민성과 경어를 결합하고, 이를 교육의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근대국민국가 일본이 국민에게 요청했던 예절과 규범의식의 내면화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가의 경어이론은 그 후 일본의 경어사용 전개에 큰 영향을 끼쳤다.

주제어

경어(敬語), 국민성, 하가야이치(芳賀矢一), 천황제, 언어교육

1. 머리말

에도 말기, 오랜 쇠국 끝에 서구 열강과 마주하게 된 일본인들은 서양의 힘과 문명에 비추어 여러모로 열등한 자의식을 가지게 된다.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와 국민국가 형성을 주도해 갔던 일본의 지식인들은 부정 긍정을 아우르는 방대한 양의 일본인론을 생산하며 ‘일본다움’을 탐구했다. 그중에서도 1907년에 등장한 국문학자 하가 야이치(芳賀矢一, 1867-1927)의 『國民性十論』은, 당시를 대표하는 본격적인 일본인론으로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특기할 것은 이 책에서 하가가 예절을 중시하는 일본인의 특성을 말하며 특히 ‘경어(敬語)’를 상세히 다룬 점이다.

하가의 이 저작을, 일본의 사회심리학자 미나미 히로시(南博, 1914-2001)는 필자의 서구유학 체험을 살려 문화사적인 관점에서 쓰인 종래에 없던 상세한 국민성론으로 평가했다. 미나미는 메이지기부터 현대까지의 일본인론을 망라한 분석을 통해, 일본인이 가진 성향 중 중요한 두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는 일본인 대다수가 대인관계에 민감하며, 자기주장보다 상대 본위의 태도를 취하려 한다는 점이고, 두번째는 이 민감성이 외국에 대한 관계에서도 발현되어 강한 비교의식이 나타나는데, 그 밑바탕에는 ‘자국의식 과잉’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¹⁾

미나미의 지적대로, 대인관계에 대한 일본인의 민감성이 언어에 표출되

1) 南博, 『日本人論 明治から今日まで』, 岩波書店, 1994/2006.

고, 그들의 ‘자의식 과잉’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경어와 경어론이라 할 수 있다. 상대에 대한 경의를 나타내기 위해 문말표현을 바꾸거나 특정한 어휘를 사용하는 경어는, 상당히 복잡한 체계로 발달해 일본에서 자란 네이티브 스피커라 할지라도 능숙하지 않은 이가 많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어야말로 ‘아름다운 일본어의 극치’ 라거나 ‘일본의 정신’을 담고 있다는 식의 말들을 우리는 흔하게 접하곤 한다.

경어를 말하고 또 경어를 행동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일본인의 심정을 토로하고, 일본인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행동하는 일면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중략] 왜냐하면 경어행동의 결락(缺落)은 바로 일본적 심정의 붕괴, 일본적 가치체계의 몰락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²⁾

이처럼 심지어 일본어의 경어와 그 예절이 단순히 언어의 차원을 넘어, 일본적 ‘심정’과 ‘가치’마저 담고 있다고 역설되기도 한다. 학계와 문화계 등에서 생산하는 이러한 국수주의적 경어담론은 오랜 기간 일본의 집단적 언어 인식에 깊은 영향을 끼쳐 왔다.

일본사회의 경어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예로, 1995년부터 매해 실시해 오고 있는 「국어(일본어)에 대한 여론조사(国語に関する世論調査)」를 들 수 있다. 문부성 산하의 문화청이 전국의 16세 이상 남녀 3,000~3,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 조사는, 각종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며 자국어에 대한 의식을 환기시킨다. 설문 내용은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언어생활과 잘못된 표현 등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묻는데, 꾸준히 경어(敬語)에 관한 항목이 상당수를 차지해 왔다. 조사 초기부터 이

2) 荒木博之, 『敬語のジャパノロジー 敬語を考える、日本人を考える』, 創拓社, 1990, p.58. 번역은 인용자, 이하 같음.

경향은 두드러졌는데, 이를테면 ‘경어를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가?’, ‘경어 사용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이 반복되어왔다. 또 ‘일본어는 아름다운가?’라는 물음에 ‘배려하는 말(思いやりのある言葉)’이나 ‘조심스럽고 겸손한 말(控え目で謙遜な言葉)’ 등의 응답을 그 이유로 들기도 한다.³⁾ 이처럼, 25년 이상 본 조사가 지속해 오는 동안 경어는 그야말로 언어에 대한 일본의 자의식을 읽는 중요한 잣대로 여겨져 왔다. 그리고 이런 경어에 대한 자아 인식은 어제 오늘의 일본에서 단기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일본 사회의 경어에 대한 높은 관심의 연원을 되짚어 보는 것은 일본인의 집단의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앞서 소개한 하가의 『國民性十論』의 내용 분석을 통해, 메이지기에 출현한 본격적 경어론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실제로 경어가 이토록 관심을 모으는 주제이기에, 일본만이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많은 외국의 어학 연구자들이 문법과 화용(話用)적 연구를 수행하였고 지금까지 실로 상당한 연구성과를 축적하였다. 그러나 위의 인용문과 같이 경어를 일본적 ‘심정’이나 ‘가치체계’와 연결 짓는 담론이 생산되는 맥락과, 경어에 대한 일본인의 높은 관심의 연원을 주목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⁴⁾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근대일본의 언어인식에 대한 이해로써, ‘국어’가

3) 국어에 대한 관심분야를 묻는 2003, 2006, 2010년의 조사에서 1)일상의 말씨와 말투(日常の言葉遣いや話し方)라는 응답이 각각 72.1%, 73.7%, 72.8%, 2)경어의 사용법(敬語の使い方)이라는 응답이 각각 58.8%, 65.5%, 65.5%를 차지했다. 또, 2000, 2017,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아름다운 일본어’의 요소로 ‘배려의 말’을 선택한 비율이 각각 64.7%, 62.5%, 63.3%로 가장 높았다. ‘조심스럽고 겸손한 말’은 각각 23.8%, 40.0%, 34.3%가 선택했다. (복수 응답으로, 2위는 ‘인사말’이며, ‘소박하지만 말하는 이의 인품이 드러나는 말’이 각 조사에서 수위를 차지했다.) 이상은, 梶原雄, 「国語に関する世論調査の日韓比較-敬語に対するイメージを中心に」, 『일본 문화학보』, 85호, 2020.

4) 대표적 선행연구로는 근대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경어연구 흐름을 정리해 그 전체상을 파악한 滝浦真人, 『日本の敬語論 ポライトネス理論からの再検討』, 大修館書店, 2005.

창출되어 가는 과정이 인위적이며 국가적인 기획이었다는 사실을 밝힌 일련의 연구는, 경어론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전환점을 제공하였다.⁵⁾ 즉 경어가 ‘근대의 창작물’인 ‘국어’의 한 ‘기축’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⁶⁾ 또, 이 인식의 연장에서, 전후를 지나 지금까지도 경어에 국수주의적 의미를 부여하는 흐름이 있음도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⁷⁾

하지만 이 연구들은 대부분 근대국어학의 경어연구사를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어, 경어에 대한 자아인식의 지평이 일본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는지 파악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에 본고는 하가의 『國民性十論』이 ‘경어’가 근대일본의 자의식과 만나게 되는 출발점이라 위치시키고, 그 내용분석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경어론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맥락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 하가가 주도한 국정 국어독본의 개정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근대국민국가 일본이 요청한 국민성담론 속에서 경어와 그 교육이 어떻게 자리매김 되는지도 고찰한다.

II. 『國民性十論』(1907) – 충효의 일치

메이지 초기, 서구 근대화를 모범 삼아 근대 국민국가를 이루려는 일본 정부와 지식인들에게 지역적 계층적 분열을 극복해 줄 ‘국어’의 창출은 절박한 과제였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언어현실은 한자사용에 의한 낮은 식자율, 통일되지 않은 가나표기법, 그리고 언문일치체의 부재 등 그야말로 난제 투성이였다. 주지하듯이, 이 시기의 근대적 언어연구는 독일유학에서 돌아와

5) 이·요ンス쿠, 『国語という思想』, 岩波書店, 1996. 安田敏朗, 『帝国日本の言語編制』, 世織書房, 1997.

6) 中村春作, 『敬語論と内なる「他者」』, 『現代思想』, vol.22-9, 青土社, 1994, pp.130~132.

7) 山下仁, 『敬語研究のイデオロギー性批判』 野呂香代子·山下仁編, 『「正しさ」への問い: 批判的社会言語学の試み』, 三元社, 2001.

제국대학에 ‘국어학교실’을 만든 우에다 가즈토시(上田万年, 1867-1937)가 주도했다. ‘일본어(=국어)’가 국민의 ‘정신적 혈액’이라 주창한 우에다와 그 문하생들은 서구언어학 이론에 기대어 주로 비교언어학과 음성학 음운학 등을 연구했다. 이후 1902년 역시 우에다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국어조사위원회’가 관제로 설치되어 가나즈카이(仮名遣い)의 변천과 방언의 음운 및 그 어법상의 변이를 전국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국어조사위원회는 「음운문자를 채용할 것 (音韻文字ヲ採用スルコト)」「언문일치체를 채용할 것 (言文一致体系ヲ採用スルコト)」「표준어를 채용할 것 (標準語ヲ採用スルコト)」 등을 골자로 ‘국어’를 구축해 갔다.⁸⁾ 이런 가운데 당시의 국어학은, 경어를 당대의 시급한 언어적 과제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그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없었다.⁹⁾

그러나, 서양어를 접하며 배태된 모어 페시미즘 즉 일본의 언어가 일관된 정서법과 근대적 의미의 문법 체계가 없는 ‘열등한 언어’라는 인식을 불식시켜줄 소재로 경어가 대두하게 된다.¹⁰⁾ 당대의 대표적 국문학자 하가 야이치(芳賀矢一, 1867-1927)가 ‘국민성’을 논하며 ‘경어’를 주목한 것이다.

일본 국문학의 창시자라 불리며, 근대의 문헌학적 연구 방법을 국문학에

8) ‘국어조사위원회’의 활동 및 근대일본의 언어시책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文化庁, 『国語施策百年史』, 株式会社ぎょうせい, 2006, pp.104~159.

9) 메이지기 최초의 경어연구는 미쓰하시 토시아(三橋要也)가 1892년에 발표한 「邦文上の敬語」이다. 저자는 황전강구소(皇典講究所)의 국학자로, 지금의 존경어와 겸양어의 구별에 상응하는 ‘타칭경어’와 ‘자칭경어’로 경어체계를 대별하고, 수많은 경어어휘의 변천 과정을 기술하였다. 그러나, 이후 1924년 일본 고유의 연구방법을 강조한 국학자이자 국어학자 야마다 요시오(山田孝雄)가 모노그라피 『敬語法の研究』를 출판하기까지, 경어는 국어학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다. 三橋要也, 「邦文上の敬語」, 『皇典講究所講演』, 71号, 72号, 1892. 山田孝雄, 『敬語法の研究』, 宝文館, 1924.

10) 일본 근대 지식인의 ‘모어(母語) 페시미즘’에 관해서는, 이른바 ‘일본어페지론’을 둘러싼 모리 아리노리(森有礼)와 바바 타쓰이(馬場辰猪)의 논쟁을 다룬 イ・ヨンスク(1996), pp.3~23.

이식한 하가는 게이오(慶応) 3년, 지금의 후쿠이(福井)현에서 태어났다. ‘국학과 어학과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고 문학을 국학에 본질적으로 결부시켜 그 특질과 사적(史的) 전개에 관해 연구를 활성화시킨 국문학 융성의 선구자’라는 것이 그에 대한 전형적인 평가다.¹¹⁾ 그의 아버지 하가 마사키(芳賀真咲)는 에치젠국(越前国)의 번사(藩士)이자 국학자였다. 마사키는 국학자 히라타 아쓰타네(平田篤胤, 1776-1843)¹²⁾에게 사사한 히라타 가네타네(平田鑲胤)의 문하에서 수학했고 가인(歌人)으로도 알려져 있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국학을 접한 아이치는 제국대학에서 국학자 고나카무라 기요노리(小中村清矩, 1822-1895)와 모즈메 다카미(物集高見, 1847-1928), 초빙 외국인교사 체임벌린(Basil Hall Chamberlain, 1850-1935) 등에게 수학하며 학문적 기초를 쌓았다. 그는 졸업 후인 1898년 조교수로 동경제국대에 취임한다. 이후 하가는 1900년 문부성으로부터 ‘문학사공구법(文学史攻究法)’에 대해 연구하라는 명을 받고 독일로 유학했다. 함께 유학길에는 오른 이들 중에는 메이지기를 대표하는 소설가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1867-1916)도 있었다.

베를린 대학에서 1년여간 독일의 문헌학을 공부한 하가는 1902년에 일본으로 돌아왔다.¹³⁾ 이때 서구 유학을 통해 그가 일본에 가지고 돌아온 것은 일본의 ‘국학’이야말로 ‘일본문헌학’과 다르지 않다는 ‘재인식’이었다.¹⁴⁾ 귀국 직

11) 国語学会編, 『国語学大辞典』, 東京堂出版, 1993, p.705.

12) 국학의 사대인(四大人) 중 한사람으로 불린다. 문학적 고증학적 요소를 배척하고 신도(神道)적 요소를 강조한 학풍으로 지방의 신관(神官)들에게 신봉되었다. 에도 말기, 복고신도를 주창하며 존왕양이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가네타네는 그의 양자이다.

13) 이후 하가는 동경제대에서 국어학과 국문학을 가르치며 국어조사위원회와 임시가 나즈카이조사위원회, 제국학사원 등에서 활약했다. 황전강구소의 대학령에 의한 승격을 주도해 1918년부터 그 후신인 국학원대 학장을 겸했다. 동궁직(東宮職)과 궁내성의 어용괘(御用掛)로서 황실 직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14) 1871년 제정 독일이 성립되고 민족주의와 국민국가적 풍조가 강해짐에 따라, 독일의 문헌학을 ‘국민성학’이라 부른 훔볼트 등은 독일인의 민족성과 민족고유의 문화를 규명한다는 이른바 ‘독일 문헌학(Deutsche Philologie)’을 표방하였다. 이밖에

후 하가는 「국학이란 무엇인가(国学とは何ぞや)」라는 제목으로 강연한다. 이 강연에서 이제 국학의 분야는 일본과 일본인이 무엇인가를 밝혀야만 하며, 그 수단으로써 말로 쓰인 문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¹⁵⁾ 나아가 ‘국민성’의 규명이야말로 일본 문헌학과 국문학사 연구의 본령이라는 입장에 서서 하가는 1907년 『國民性十論』을 출판하였다.¹⁶⁾ 이백오십여 쪽에 이르는 분량의 이 책은 12월에 출판된 뒤 다음 해 1908년 1월에 재판, 8월에 정정 3판이 연이어 발행되었다. 이후 1927년까지 무려 24판이 발행되었고, 1933년의 개정판과 1938년 히사마쓰 센이치(久松潜一)의 교주본이 출간되는 등 장기간의 베스트셀러였다. 하가의 제자인 히사마쓰는 ‘국민성’이라는 말 자체가 『國民性十論』에 의해 알려지게 되었으며 그 뒤로 많은 국민성론이 나왔으나 하가를 넘어서는 논의를 밝히지 못했다고 그 업적을 평가했다.¹⁷⁾

하가의 독일 유학에 대한 자세한 사정은 다음을 참조. 長嶋弘明編, 『国語国文学研究の成立』, 放送大学教育振興会, 2011, pp.43~56.

- 15) 한편, 선행연구들은 하가의 문헌학에 대한 이해가 일본 근대국문학의 성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밝혔다. 江藤裕之, 「フィロロギーとしての国学研究：村岡典嗣と芳賀矢一のフィロロギー理解と国学」, 『東北大学大学院国際文化研究科論集』, 第21号, 2013. 清水 正之, 「芳賀矢一における「日本」の解釈をめぐる：思想史研究と国文学」, 『日本文学』, 第41卷第10号, 1992. 특히, 清水正之(1992)는 『國民性十論』을 통해 하가가 일본에 관한 담론의 한 전형을 만들었음을 분석하고 있는데, 경어에 관해서는 충분히 언급되지 않았다.
- 16) 하가가 정의하는 열 가지의 일본 국민성이란 다음과 같다.
- 一, 忠君愛国(충군애국)
 - 二, 祖先を崇び家名を重んず(선조를 숭상하고 가명을 중시함)
 - 三, 現世的實際的(현세적 실제적)
 - 四, 草木を愛し自然を喜ぶ(초목을 사랑하고 자연을 기뻐함)
 - 五, 樂天洒楽(낙천세락)
 - 六, 淡泊瀟洒(담박소세)
 - 七, 織麗織巧(섬려섬교)
 - 八, 清淨潔白(청정결백)
 - 九, 礼節作法(예절작법)
 - 十, 温和寛恕(온화관서)
- 17) 같은 해 히사마쓰는 자신의 저서 『我が風土 国民性と文学』를 출간했다. 히사마쓰의

1905년, 일본은 청일전쟁에 이어 러일전쟁에서도 승리하며, 조선과 인도의 식민지배를 상호 용인하기로 한 동맹을 영국과 체결하였다. 그러자 본서의 서언(序言)에서 하가가 언급하고 있듯이, 점차 세력을 확대하는 일본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배일(排日)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國民性十論』은 대외적으로 일본인의 국제적 지위가 문제시되는 이런 상황에 대응한 것이기도 했다.¹⁸⁾ 그래서일까, 이 책의 각론 대부분은 서양의 시선을 의식한 기술이 빠지지 않고 전개되는 점이 무엇보다 눈에 띈다. 또 저자는 일본이 일찍이 ‘지나’의 문화를 수용하였고, 또 ‘지나’를 통해 인도의 문화도 받아들였지만, 이들 중 유일하게 강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자부한다.

하가는 우선 제1장 「충군애국」에서 “일본국민의 황실에 대한 생각은 고금동서에 전혀 유례가 없다”며 서양 및 중국과 대비되는 천황제의 ‘일관성’을 예찬한다. “서양제국의 제왕과, 지나의 천자도, [중략] 그 소성(素性)을 씻고, 선조를 밝혀보면 똑같은 국민”이다. 그러나 “어찌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겠는가(王侯將相何有種)”라는 말은 서양과 ‘지나’의 생각일 뿐, 선조 이래로 “일본인은 제왕의 자리란 국민이 결코 기유(覬覦)해서는 안 된다고” 여겨왔노라 단언한다.¹⁹⁾

본서 전체를 통해 하가는 서양의 이른바 ‘평등주의’와 대비되는 일본의 ‘가미(カミ, 神) 숭배를 강조한다. “서양의 원래가 평등주의인 나라와 원래가 신을 숭배하는 나라와는 그 사이에 자연히 차별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하가는, 신과 인간, 천황과 국민 사이의 구별은 인위적인 의도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연히’ ‘생겨난’ 것임을 강조하며, 따라서 서양과의 이러한 대비는 극

하가연구 계승에 관해서는 安田敏朗, 『国文学の時空—久松潜一と日本文化論』, 三元社, 2002, pp.232~242.

18) 南博(1994/2006), p.53.

19) 芳賀矢一, 『國民性十論』, 富山房, 1907, pp.7~13.

히 당연한 귀결이라 힘주어 말한다.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가는 천황과 국민의 위계는 자연발생적 부자관계이자 선조와 자손의 관계와 같으며, 일본 전체를 천황가를 정점으로 하는 하나의 가계이자 가족의 이미지로 그린다. ‘가족국가’는 근대 천황제를 작동시키는 기제로, 여기에서는 각각의 ‘이에(家)’에 속한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조상신을 숭경하며, 그 가장(家長)에게도 마찬가지로 숭경과 복종의 태도를 취할 것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가족국가의 정상에 있는 천황에 대한 충성은 가장에 대한 효를 기반으로 하여 이것이 확장되어 정점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즉 각 가정의 가장에 대한 효의 총합이 최종적으로는 충으로 결집되어 천황으로 향하게 된다. 이러한 효와 충의 결합이 가능했던 것은 개별 이에(家)의 조상신과 마을의 우지가미(氏神)가 모두 중국적으로는 일본 고유의 조령(祖靈)의 계보를 통해 천황가의 천조신(天照大神)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담론과 믿음이 에도시대 후기부터 널리 유포되었기 때문이었다. 각 가정과 마을, 그리고 천황가의 조령은 같은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는 ‘신국(神國)’적 가족국가관이었다.²⁰⁾

이 사상 속에는 황실과 국민간에 많은 친애의 의미가 담겨있다. 통치자와 피치자라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상하가 서로 친목하고 있는 정취가 있다. 모든 신들(八百万の神)은 황존의 사업을 익찬하는 이들뿐으로, 의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대본가(大本家 [오야케])의 통령이자 큰 어른으로 존경하는 것이다. 부모 자식과도 같은 관계가 성립해 있는 것이다. [중략]

부모 자식간의 애정은 사람의 지정(至情)으로 이것이 마고코로(マゴコロ)이다. 이 마고코로가 즉 충이다. 충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의 음이지만, 일본

20) 일본의 ‘이에(家)’와 ‘효’ 개념은 유교전통과 혈연주의가 강한 한국의 그것과 대비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논의를 참조. 許南麟, 「祖靈、家、そして近代の『家族國家』」, 圭室文雄編, 『日本人の宗教と庶民信仰』 吉川弘文館, 2006, pp. 446~464.

에서 이를 바꾸자면 아메고코로(アメゴコロ)로 즉 마고코로(マゴコロ) 외에는 없다. 일본에서는 충도 효도 같은 것이며 모두 똑같이 마고코로이다.²¹⁾

부모에 대한 지정의 진심, 즉 그 지극한 마음이 천황에 대한 충과 일치하는 것이라 강조하는 하가는, 충(忠)이라는 한자의 음이, 일본에서 마고코로(マゴコロ)로 바뀌었다며, 이것은 일본의 아메고코로(天心의 일본음), 마고코로(真心의 일본음)에 상응하고, 효(孝) 또한 이 ‘마고코로’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이 충효 일치는 일본 근대 천황제의 근간으로, 하가는 ‘마고코로’의 개념을 통치자와 피치자 사이의 의리로만 얽힌 복종의 차원을 넘어선 부모와 자식간의 애정, 즉 지정(至情)의 원초적 감정이라 정의한다. 여기서 ‘가라고코로(漢意, 漢心)’를 철저히 배제한 ‘야마토고코로(大和心)’에서 일본인의 사상과 심정 그리고 사교의 원리를 찾아야 한다고 역설한 에도기의 국학자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 1730-1801)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 하가는 노리나가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 않으나, 일본문학으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그의 국학이 에도기의 전통과 결별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하가는 뒤이어 이 지정한 진심 ‘마고코로’가 도쿠가와시대에 이르러 변질되었다고 비판한다. ‘진심’과 상통했던 ‘충(忠)’의 개념이, 막부제도에 의해 오직 위계와 의리만을 강조하는 ‘주종의 관계’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하가는 또한 도쿠가와 막부가 그들의 혈족인 친번(親藩)과, 관계성이 소원한 가신(家臣) 도자마(外様)를 구별했던 통치책을 보더라도, 그 주종관계가 천황과의 군신(君臣)관계와는 다르다고 했다. 신(臣), 배신(陪臣) 등의 표현만 보아도 그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며 도쿠가와가 지배했던 시대를 다

21) 芳賀矢一(1907), pp.21~22. 강조는 모두 원문에 의하며 이하 같음.

음과 같이 설명한다.

막부의 세상이라고는 해도 국민은 결코 황실을 잊었던 것이 아니다. [중략] 일단 주종의 관계로 옮겨갔던 충(忠)의 해석은 메이지의 유신과 함께 다시 예전처럼 황실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어 버렸다. 아니 메이지의 유신 자체가 그 해석을 황실에 한정시키려고 도쿠가와 막부를 타도한 것이었다. 유신 후에는 사사농공상(祀土農工商)이 모두 평등해지고 이제 일반국민이 병역에 임하게 되었다. 배신(陪臣), 배배신(陪陪臣)의 제도는 폐지되어 모두 천조직참(天朝直參)의 신하가 되었다. 오랫동안 무가에서 양성한 무사도적 정신은 이제 천조를 향해서만 바쳐지게 되었다.²²⁾

조정과 막부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하가는, 천황과 신하가 친애를 바탕으로 한 부자지간이라면, 막부에는 쇼군(將軍)과 제후(諸侯), 제후와 가신(家來)으로 이어지는 주종의 연쇄만이 있고, 이는 ‘공맹의 가르침’일 뿐이라고 선을 긋는다.²³⁾ 하지만 이제는 메이지 유신에 의해 주종관계의 위계와 의리만을 강조하던 막부의 ‘충’이, 천황과 황실에 바치는 ‘충효’로 대체되었다며 안도한다. 또 막부시대의 산물인 ‘무사도적 정신’ 또한 천조를 향해 바치는 것으로 변화했다고 부연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²⁴⁾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도쿠가와가 지배하는 막번 체제를 무너뜨리고 천황 중심의 국민국가 형성을 주도한 존왕파 개혁세력들이 가진 ‘일군만민(一君萬民) 사상’이다. 그들은 봉건체제 권력의 다원적 분산이 천황에게 집중되고 천황과 서민 사이의

22) 芳賀矢一(1907), pp.31~32.

23) 이 ‘공맹의 가르침’이 근세 일본의 통치원리로 이용된 시기는 도쿠가와기 이후로 한정된다. 중국 및 조선과 대비되는 일본의 유학 수용과 관련한 논의는 渡辺浩, 『東アジアの王権と思想』, 東京大学出版会, 2018, pp.70~145.

24) 하가는 1900년 니토베 이나조(新渡戸稲造)가 영문으로 출판한 『武士道』(BUSHIDO: The Soul of Japan)의 영향으로, ‘무사도’를 일본적 특성의 전형으로 이해하는 외국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했다. 이후에도, 무사도 정신은 무가시대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며, 그 근본은 신도(神道)에 배태되어 있었다고 말한다. 芳賀矢一, 『忠君即敬神』, 『筆にまかせて』, 日本書院, 1918, pp.18~20.

중간세력이 배제되어, 신분차별과 지역할거성 없이 모든 인민이 ‘평등하게’ 천황의 지배 아래에 놓이는 세상을 지향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우선 막부의 권위와 그에 대한 복종의 방향을 천황과 황실로 전환시켜야만 했던 것이다. 하가가 도쿠가와기의 ‘충’을 거듭 폄하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주목할 점은 정신론의 의의를 강조하며 이를 국가주의와 연결시키는 하가의 논지이다. 충효 일치의 ‘마고코로의 정신’이 만세일계의 국체를 이룬 원인이자, 동양 유일의 대강국이 된 이유이며, 오직 천황만이 ‘짐이 곧 국가’라 선언할 세계 유일의 존재라는 것이다. 결국 ‘마고코로의 정신’이 ‘만세일계의 국체’로 귀결한다는 것이 이 장의 주지(主旨)인데, 하가는 『國民性十論』의 9장 「예절작법」에서 경어야말로 이 유일한 국체가 언어상에 구체적으로 발현한 것이라 주장한다.

Ⅲ. ‘번욕(繁縟)’에서 ‘경신(敬神)’의 경어로

하가는, 일본인의 청결함과 더불어 서양인이 감탄하는 점이 바로 ‘예의 바름’이며, 정중히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 두 번 세 번 인사하는 것을 서양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말로 제9장 「예절작법」을 시작한다. 실제로, 메이지 초기에 일본을 방문한 서양인들이 ‘기이’한 장면이라고 입을 모은 것이, 서로 땅에 닿도록 연신 허리를 숙이며 누구도 먼저 일어나지 못하고 길게 이어지는 인사 ‘오지기(お辞儀)’의 방식이었다.²⁵⁾ 도가 지나쳐 우습기까지 하다는 이런 시선을 의식한 하가는 일본인의 예절이 오랜 봉건시대를 거치며 한층 번욕(繁文縟禮의 줄임말) 해진 탓이라 항변한다. 하가는 그 ‘번욕(繁縟)’한

25) 메이지 중기까지도 이런 인사는 혼한 거리의 풍경이었다. 관찰자들은 하층 계급에서도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인상적으로 기록하며, ‘우아함과 명백한 선의를 나타내 매력적’이라 말하기도 했다. 渡辺京二, 「第4章 親和と礼節」, 『逝きし世の面影』, 平凡社, 2005, pp.146~203.

예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막부가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점점 아래를 향해 예절을 엄중히” 요구했던 과거를 설명한다.²⁶⁾

과연 “자신이 모시는 주군 위에 또 주군이 있고, 또 그 위에도 주군이 있으므로, 주군에게 머리를 숙이는 정도보다 주군의 주군을 향해서는 한층 더 낮게 머리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 주군의 주군이 머리를 숙여야 하는, 주군의 주군의 주군에게는, 도계자(土下座, 땅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림)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막부의 위계질서는 엄격했다.²⁷⁾ 위압적인 막부의 권세에 의해 수없이 많은 예의의 계급과 그에 따른 존비(尊卑)가 생겼고, 따라서 막부의 말(詞)은 상당히 경어가 복잡했으나, 오히려 궁중의 용어는 경어가 간단했다는 것이다.

사실 이렇게 도쿠가와 시대를 위압적이었다고 보는 하가의 견해는 타당한 것이다. 근세 동아시아 정치사상사를 연구한 와타나베 히로시(渡辺浩)는, ‘어위광(御威光)’이야말로 도쿠가와 막부 지배의 핵심 장치임을 간파했다.²⁸⁾ 무력으로 천하를 얻은 막부는 오로지 무위를 떨쳐 백성들을 겁주어 복종시키며, 나라를 다스림에도 오직 위광과 격식에 의해 통치하였다. 무장한 전국의 다이묘가 에도로 행진하는 참근교대(參勤交代)의 장엄한 모습은, 통치자의

26) 하가는 도쿠가와기 서찰에 쓰인 경칭이, 樣와 殿의 차이는 물론 서체에 따라 높임의 정도가 달랐음을 자세히 설명하며, 『弘安礼節』에 기록된 一, 頓首誠恐謹言 二, 誠恐謹言 三, 恐惶謹言 五, 恐々謹言 六, 謹言 七, 之状如件 와 같은 결구(止所)의 단계를 나열해 보인다(四, 누락은 원문대로임). 『弘安礼節』이란, 弘安8년(1285年) 가메야마 상황(龜山上皇)이 제정한 구계(公家)의 예절 지침서로, 특히 서찰례(書札禮)에 관한상세한 규범을 담고 있다. 芳賀矢一(1907), pp.206~208.

27) 芳賀矢一(1907), pp.207~208.

28)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渡辺浩, 『日本政治思想史[十七—一九世紀]』, 東京大学出版会, 2010, pp.51~69. 渡辺浩(2018), pp.16~67. 와타나베는 ‘막부’ 대신 도쿠가와 정부를 의미하는 ‘공의(公儀)’를 사용하고, 1840년의 고카쿠 천황(光格天皇) 이전까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던 ‘천황’ 대신 ‘금리(禁裏)’를 사용하나, 본고에서는 일반적 용어를 따랐다.

신분을 과시하는 장치였다. 쇼군 알현에서는 각자의 지위에 따른 자리에 다이묘가 위치해 그 뒤로 부하가 엮드리고, 그 부하에게는 조닌(町人)과 하쿠쇼(百姓)가 거리에서 바짝 엮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엮드리게 하는 자와 엮드려야 하는 자의 장대한 연쇄가 전국을 관통했고 그 정점에 도쿠가와 막부가 위치했다. 그 누가 이 구도를 전복가능한 인공적 연쇄라 인식할 수 있었겠느냐는 와타나베의 지적은, 앞서 하가가 천황에 대한 충과 부모에 대한 효가 일치된 것이 일본 군주관의 핵심이라고 힘주어 주장한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 어제의 조닌(町人)과 하쿠쇼(百姓)를 오늘의 ‘국민’으로 호명하기 위해 도쿠가와 시대의 어위광(御威光)은 무너지고 그 자리에 천황을 향한 ‘마고코로’가 자리잡아야 했던 것이다. 『國民性十論』이 출간된 메이지 40년대의 일본은, 유신 이후 일어난 자유민권운동이 쇠퇴한지 오래로, 제국주의로의 발걸음을 재촉하며 복고적이고 체제수호적 사회 분위기가 완연해 가던 시기였다. 본문에서 하가가 언급하듯, 천황 아래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병역을 수행하는 시대에 맞춘 애국논리가 요청된 것이다.²⁹⁾

이에, 『國民性十論』의 하가는 『古事記』를 예로 들면서 경어의 연원을 천황과의 관계로 풀어낸다. 『古事記』는 『日本書紀』와 더불어 8세기 나라시대의 관찬 역사서로 천황 지배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천조신화와 천황가의 역사를 기술하였다. 이들은 시가집인 『万葉集』과 더불어 ‘기기만요(記紀万葉)’라 불리는 일본 내셔널리즘의 근간으로, 국학의 주된 연구대상이었다. 독일 유학 이후 문헌학적 연구방법을 새로운 국학연구의 활로로 제시한 하가인 만큼, 그는 이 『古事記』에 기록된 신들의 이름과 그 경칭을 자세히 소개한다.

29) 1916년, 하가는 『戦争と国民性』을 출간하였다. 이 책에서 하가는 무사도보다 오래되고 넓은 국도(國道)가 선조로부터 이어져 왔으며 이 무형의 정신이야말로 지금의 군대를 지탱하는 생명이라고 말한다. 芳賀矢一, 「武士道と國道-正成と権助-軍隊の生命」, 『戦争と国民性』, 富山房, 1916, pp.12~16.

이는 정쟁(淸淨)을 귀히 여기는 풍습과 마찬가지로, 다시 말해, 신을 공경하는 풍습에서 나온 것이다. 때문에, 고대의 언어에는 이미 많은 경어가 있다. 古事記의 신들의 이름을 보면 수많은 경칭과 존칭을 확인할 수 있다. 신명(神名)의 위에 天, 神, 稜威, (嚴)齋(忌)湯, 御, 廣, 大, 磐, 眞, 生, 瓊, 日, 彌 등의 어(語)가 있는 것은, 모두 사업(事業)이나 성행(性行) 등에 관한 존미(尊美)의 형용사이다. 가장 긴 것으로는 天邇岐志国邇岐志天津日高日子番能邇々藝命 등도 있다. ヒコ, ヒメ는 日子, 日女이다. ミコト는 御事이다. 또 御子(皇子), 御家(宮) 등 모두 御(ミ) 라는 경어의 접두사를 부가해 구별하고 있다. 뒤에는 皇子를 宮라고 한 것은 天皇을 御門(ミカド)라고 공경한 것과 같은 셈이다. 才(御)는 才ホ의 약어로 才ホ는 大多 등의 어기(語基)로, 이것도 경칭의 접두사이다. 동사로 말하자면 言ふ를 宣ふ, 居る를 おはす, 食ふ를 めす라고 하듯, 특히 존경을 위해 사용하는 별도의 어(語)가 있다. [중략] 점점 이후에는 가미(カミ) 즉, 神, 皇室, 皇族 뿐만이 아니라 大臣 公卿에도 쓰게 되고, 점차 일반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쓰이게 되어, 오늘날과 같이 경어가 많은 일본어가 된 것이다.³⁰⁾

하가는 ‘天邇岐志国邇岐志天津日高日子番能邇々藝命’와 같은 길고 복잡한 신의 이름을 제시하며 이렇게 수없이 많은 경칭을 중첩해 놓은 데서, 고대로부터 전해진 천조신과 천황가에 대한 존경의 정도를 엿볼 수 있다고 한다. 『古事記』에 나타난 이러한 천황에 대한 수많은 경칭의 나열 외에도, 하가는 천조의 제사(祭祀)에 쓰는 축문인 노리토(祝詞)와 천황의 명(命)을 기록한 센묘(宣命)³¹⁾의 구조와 문체가 장중하고 삼엄함을 칭송한다.

노리토 문의 구조는 마치 그 의용을 보는 것과 같이, 어(語)를 중복하고,

30) 芳賀矢一(1907), pp.209~210.

31) 노리토(祝詞)와 센묘(宣命)는 만요가나(万葉仮名) 등을 이용해 화문체(和文体)로 기록했다. 나라시대부터 사용된 이러한 문체를 가리켜 센묘체(宣命体)라고 한다.

대구(對句)를 중복하고, 문단을 중복해, 장중 삼엄하게 되어 있다. 문장에 생략이 없다. 용장(冗長)하다. 같은 것을 반복한다. 제사와 똑같은 성질이다. 이렇게 신을 기리는 의식과 선조를 기리는 의례를 존중한 국민이므로, 이것이 평소의 행동거지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신에 대한 마음가짐이 일상의 생활에까지 이른 것이다. 공자의 가르침을 기다려 비로소 예를 안 것이 아니다. 선묘의 형식도 노리토와 완전히 취지를 함께 한다.³²⁾

또 하가는, “예(禮)의 고어는 이야(伊ヤ)이다. 공손하게(伊ヤ伊ヤシク(恭しく)) 신을 기릴 때의 태도가 이야(伊ヤ)이다. 즉 그 태도로서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한다”며,³³⁾ 신에 대한 경건한 마음가짐이 국민들의 일상 생활과 행동거지로 스며든 것이 일본예절의 특질이라 정의한다. 그리고 신을 가리키는 가미(神)와 위아래의 위를 가리키는 가미(上)의 발음이 일치하는 것 또한 고래로부터 이어진 경신(敬神)사상을 증거한다고 말한다. 하가는 여기서도, 이것이 공자의 가르침이 아닌 일본 고유의 심성이라 강조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단지 검을 잘 쓰는 것만이 무사가 아니며, 여자 교육에서는 특히 작법(作法, 예의범절)이 강조된다고 하며, 무릇 예의란 남이 아닌 자신을 위한 것이므로 올바르게 익힐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하가는 유교의 ‘극기복례’가 ‘우리 국민성’과 일치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선조숭배는 “지나인 보다 진개(眞箇)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항변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참된 의의’가 일본의 ‘국체’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하가는 “지나인의 종묘(宗廟)는 때때로 변화했으나 일본인의 그것은 만세불역”이라는 사실이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일본의 특질이며, 이는 고대 문헌에서 보는 노리토의 장중 삼엄함과 만엽집의 시가를 통해 확인된다고 거듭 강조한다.

앞서 하가는, 본서의 제2장 「선조를 숭상하고 가명을 중시함」에서 “그 누

32) 芳賀矢一(1907), pp.222~223.

33) ‘공손하다 정중하다’는 뜻 ‘恭しい’의 현대음은 ‘うやうやしい’이다.

구라도 부모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대본가의 가장(家長)이자 ‘현인신(現人神)’ 천황에 대한 존숭도 이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일본의 선조숭배와 ‘이에(家)’제도를 천황에 대한 존숭에 연결시켰다. 종묘와 종교를 혼동하지 말 것을 주문하며 일본이 ‘신국(神國)’임을 증명하고자 한 하가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일본은 신국이다(日本は神國也)’라고 예부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이 때 문이다. 신이라고 해서 후세에 발달한 각파의 신도(神道)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완전히 종교를 떠난 문제다. 신앙이 문제가 되는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적어도 일본 국토에 태어나 일본국의 신민(臣民)이 된 차라면 가미(カミ)와 오야케(オオヤケ)에 대한 마고코로로(マゴコロ)에서 조종(祖宗)의 영(靈)을 존숭하게 되는 것과 다른 아니다. 태고부터 국체와 동반한 것이다.³⁴⁾

상과 神의 가미(カミ)와 공과 大本家の 오야케(オオヤケ)가 각각 일치하는 것을 보더라도, 일본의 신민(臣民)은 효와 충이 일치된 마고코로(マゴコロ)에서 대본가의 가장이며 ‘현인신’인 천황을 존숭하는 것이라며 신국 일본의 국체가 태고로부터 신앙과 종교를 초월한 것이라 강변한다.

그런데, 하가는 바로 앞에서 도쿠가와 막부 시대에 이르러 수많은 ‘계급 준비’가 생길 만큼 예절이 ‘번욕’해졌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바로 뒤이어 『古事記』의 수많은 경칭의 중첩과 축문 노리토의 중복을 두고는 ‘장중 삼엄’한 신에 대한 경건한 마음가짐의 발현이라고 입이 마르게 칭송하는 것이다. 앞서 그가 막부시대의 예절을 번욕하다고 비판한 것은 그 권위의 정점에 쇼군 토쿠가와씨(徳川氏)가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만세일계의 국

34) 芳賀矢一(1907), p.40.

체가 일본다움의 요체라 주장하는 하가는, 무가시대를 거치며 ‘단절’되었던 천황과 황실에 대한 ‘국민’의 존경심을 고대에서 되찾자고 요청하며, 이 장에서 일본 경어의 연원이 천황에게서 비롯된 것이라 ‘고중’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민성이 드러난 경어사용의 예로 하가가 소개한 몇 가지의 어휘를 살펴보자. 동경에서는 미소시루(味噌汁)를 ‘오미오쓰케(オミオツケ)’, 발을 뜻하는 ‘아시(足)’를, ‘오미아시(オミアシ)’라고 하는데 이것은 품위 있게 말할 때, 오오(オホ)와 미(ミ) 두 개의 경사(敬辭)를 덧붙인다는 것이 하가의 해석이다.³⁵⁾ 또 경사가 완전히 혼화(混化)되어 어(語)의 한 부분을 이루었기에 다시 떼어내지 못하는 말로 오시로이(オシロイ, 白粉), 오모차(オモチャ, 玩具) 등을 제시한다. 그런데 이런 경어의 조어법에 대한 설명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하가가 다음과 같이 경어의 성격을 정의하는 대목이다.

원래 경칭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존숭(尊崇)이라고는 할 수 없다. 친애의 의미도 있다. 우미(優美)하게 말하기 위해서도 쓴다. 이미 경칭의 어가 존재하면 경칭을 사용하지 않으면 상스럽게 들리기 때문에 상류의 사람이나 품위를 지키고자하는 사람은 아랫사람에 대해서도 오히려 공손(丁寧)한 말을 쓴다.³⁶⁾

낮은 이가 높은 이에게 사용하는 본래의 경어사용 기준에 주목하면 그 바탕이 되는 위계의식이 강조되고 만다. 하가 또한 앞서의 인용에서 본 것처럼 神, 皇室, 皇族, 大臣, 公卿의 위계를 거쳐 일반에게까지 사용범위가 확대되었다고 일본의 역사와 함께 경어의 연원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하

35) 미칭이자 존칭의 접두어 오호(大)와 미(御)를 붙여 쓴 오호미(大御)는 최상급의 경의를 표현하는 것으로 아마테라스오미카미(天照大御神)와 같이 신과 천황에게 쓰인다. 하가는 이런 접두어의 중첩이 ‘오미오쓰케’와 ‘오미아시’ 등에 나타나는 것을 ‘불경’이 아닌 ‘공손’함의 표현이라 보았다.

36) 芳賀矢一(1907), p.211.

가는 경어가 말하는 이의 우미하고 품위 있는 성품을 나타내는 수단이라 강조함으로써 이를 상하의 인간관계가 아니라 사용 주체의 인격과 성품에 결부되는 문제로 치환하고 있다. 천조에 대한 경신(敬神)의 정신을 강조하는 동시에, 경어가 인격과 품위를 나타내는 수단이라는 인식은 이렇게 하가의 논리 구축을 통해 탄생한 것이다.

IV. 예절작법의 교육과 경어

하가는 『國民性十論』을 발표한 이듬해 국정교과서 개정을 위해 조직된 ‘교과용 도서 조사 위원회’에서 주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실질적으로 국민의 언어생활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 위원회의 국어부장은 천황제 이데올로기인 철학자 이노우에 테쓰지로(井上哲次郎, 1856-1944)이며, 하가와 함께 마쓰무라 모스케(松村茂助), 미쓰치 츄조(三土忠造)가 주사위원으로 함께 활동하였다. 이들 중 하가가 가장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위원회를 주도하였기에, 이 제2기 국정교과서 『尋常小学讀本』(1910)은 ‘하가독본’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1904년에 발행된 국정 제1기 국어 독본이, 언어주의와 어법주의를 표방했던 것에 반해, 제2기의 이 개정 독본은, 국민의 사상정신을 계발 배양하고자 쓰여진 특색이 농후한 관계로, ‘국민사상독본’이라고도 한다.³⁷⁾

그렇다면 이 ‘하가독본’이자 ‘국민사상독본’은 경어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근대 이후 일본의 경어연구를 분석하고, 국정교과서에 반영된 경어의 변화양상을 분석한 한유선·형진의(2006)는, 제1기에서 제4기까지 국정 국어 독본의 경어 출현빈도를 분석하였다.³⁸⁾ 이에 따르면, 제2기의 독본에서 이전

37) 中村紀久二, 『復刻版国定教科書編纂趣意書』解説, 図書刊行会, 2008, pp.31~34.

38) 한유선·형진의, 「근대일본어에 있어서 경어의 사회언어학적 고찰」, 『일본문화학보』, 28호, 2006.

보다 대화문이 대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어의 사용은 증가했으며 더욱이 제1기보다 그 종류도 늘어났다. 예를 들어 제2기 독본에 존경어「あそばす」「ごらんくださる」등 비교적 어려운 경어용례가 새로 등장한다. 또, 현대 일본어의 보편적 존경 표현인「お~になる」의 어법은, 제1기 독본의 21회에서 제2기 독본의 35회로 크게 증가했다. 겸양어 동사「いただく」「いたす」「うかがう」「ぞんずる」「もうす」「もうしあげる」의 용례 또한 제2기 독본에서 눈에 띄게 늘었다.³⁹⁾ 천황과 황실에 대한 충효를 강조하는 한편, 우미하고 공손하게 말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경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하가의 생각이『尋常小学読本』(1910)에서의 경어사용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또한, ‘하가독본’의 경어사용 증가는, 호칭 면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주로 さん(상)을 사용한 제1기에 비해, 제2기에서는 さま(사마)의 사용이 증가했고, 제1기의 さん이 제2기에서 さま로 바뀐 예도 있다. 가족호칭을 보면, 제1기에서 お父さん, お母さん으로 통일되었다가, 제2기에서는 おかあさま가 새로 등장하기도 한다.⁴⁰⁾ 『國民性十論』에서, ‘일본의 부모자식과 부부는 서양과 같이 친근한 사이가 아니다. 가족 간이라 해도 예절을 기본으로 한다’고 말하는 하가의 엄격한 경어규범의식이 적용된 것이다.⁴¹⁾ 뿐만 아니라 제Ⅱ장에서 살펴본 천황에 대한 충과 부모에 대한 효를 일체화한 충효가 교과서에서 강조된 것은 이후의 국정 수신(修身)교과서의 개정에서도 발견되는

39) 「お~になる」와 「いただく」 같은 표현이 메이지기 이후 보다 엄격한 경어사용 의식을 가진 도교를 중심으로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 이는 오늘날의 경어가 일본의 오랜 전통이라기 보다, 근대 이후의 새로운 양식임을 시사한다. 한유선·형진외, (2006) pp.56~59.

40) 中村紀久二는 ‘おかあさん’이라는 호칭이, 제1기 국정국어독본에 의해 처음으로 교과서에서 채용되었으며, 이는 국가가 ‘おかあさん’이라는 말을 전국에 보급시킨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中村紀久二, 『教科書の社会史—明治維新から敗戦まで』, 岩波書店, 1992, pp.163~169.

41) 芳賀矢一(1907), p.225.

특징이다.⁴²⁾

이렇듯 ‘하가독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연이어 승리한 뒤 국가주의가 한껏 고취된 상황에서 일본이 창출하려는 국민상을 집약한 결정체로서의 ‘국정’교과서였다.⁴³⁾ 그러므로 개정된 독본에 제시된 경어의 다용(多用)은, 일개 국문학자의 소신이라기보다, 나아가 국가가 요구하는 국민 언어생활의 모델로 제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하가가 이 『尋常小学讀本』의 개정판 초고가 완성된 당일, 교원들을 대상으로 편찬의 취지를 설명한 강연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국정독본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어려운 것으로, 귀족과 평민들이 전혀 경우가 달라 전국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독본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빈민의 아이의 독본도 학습원에서, ___ 황손전하를⁴⁴⁾ 비롯해서 읽으시는 독본과 같은 것이므로,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말에서부터 무척 어렵기 때문에, 우리들의 가정에 적절한 말을 사용하면 그것은 위쪽에서는 상당히 비난을 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아직 말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그 외에 풍속 습관 등도 오늘날의 메이지 시대는 아직 충분히 서양처럼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상당히 복잡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남녀 사이에도 말이 다릅니다.⁴⁵⁾

이 글은 실제 강연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 문말이 어색한 문장이 눈

42) 이때 수신교과서의 편찬을 주도한 이는 헌법학자 호즈미 야쓰카(穂積八束)로, 그는 조상신을 대표하는 가장권(家長權)의 확립을 통해 충효일본(忠孝一本)을 강조한 대표적 군권(君權)절대주의자이다.

43) 문부성은 1902년 뇌물수취 의혹사건(疑獄事件)을 구실로 교과서의 국정제를 실시해, ‘교육칙어’의 취지에 철저한 충효애국과 부국강병의 정신계발을 담은 교육내용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고자 했다.

44) ‘황손전하’ 앞의 빈칸은 원문대로이며, 경의를 나타내는 꺾자(闕字)이다.

45) 芳賀矢一, 「国定小学讀本編纂の趣旨」, 『帝国教育(復刻版)』, 第328号, 雄松堂出版, 1909/1988, p.9.

에 띄는데, 이는 당시 입말을 기록할 적절한 글말, 즉 언문일치체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했음을 반증하고 있다. 하가는 각 계층간, 지역간, 남녀간에 쓰는 말이 다르며, 각각의 풍습 또한 ‘아직 충분히 서양처럼 통일되어’ 있지 않아 ‘모든 것이 상당히 복잡한 상태’라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그는 교원들을 향해 귀족과 평민, 아니, 빈민과 황손이 함께 사용할 교과서를 편찬하는 고충이 실로 만만치 않다고 토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서 하가는 『國民性十論』에서 예절과 경어의 정신을 강조하며, 그 정통성과 권위를 『古事記』의 신명(神名)이나 노리토와 센묘에서 구했다. 그러나 실제로 교과서를 편찬하면서는, 계층과 지역에 따라 달리 존재하는 말들 속에서 무엇을 통일된 ‘국어’의 예로 제시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했다.

한편 문부성은, 이 국정교과서 개정과 함께 ‘작법교수사항취조위원회(作法教授事項取調委員會)’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는 1910년 6월 제1회 위원회를 시작으로 29회에 걸친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문부대신에게 보고했다. 문부성은 그 결과인 『文部省調査師範学校中学校作法教授要項』(1911)을 시작으로 소학교용 교수요항서 『文部省制定小学校作法教授要項』(1913) 등을 제작해, 식사와 보행 등 일상생활의 행동거지와 언어사용에서부터 축제일의 의식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예법에 관한 지침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이 교수요항의 「언어대응」 편에서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 황실에 관한 답화에는 반드시 경어를 사용할 것(一 皇室ニ関スル談話ニハ必ス敬語ヲ用ふヘシ)」이라는 점은, 황실에 대한 존송을 당시 예절교육의 최우선 규범으로 삼았던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이렇게 일본국민은 황실을 비롯한 장상(長上)에 대한 말하기 예법을 학교의 규율로써 내면화하였다. 다시 『國民性十論』의 제9장 「예절작법」 마지막으로 돌아가면, 하가는 다음과 같이 이 장을 끝맺는다.

지금 일본은 모든 것이 혼잡한 시대로, 일체의 예의작법은 어지러워졌다. 그도 그럴 것이 수 백 년 동안 제번(諸藩)의 각각의 습관 풍속이 하나가 되고, 동서의 풍속도 뒤섞였기 때문이다. 예절이라고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지금의 사회의 상류에 선 사람은, 이른바 메이지 유신시대의 난폭한 시세를 지나온 한 사람으로, 이들의 예의에 구애받지 않는 풍모가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도 많다.⁴⁶⁾

서생사회에서는 더욱 예절 관념이 희박하다. 서생출신의 지사(知事)가 봉쇄사(奉幣使)로서 관국폐사에 참향(參向)한 실수담은 옛날이라면 할복을 해야 할 터이지만, 오늘날에는 그저 그 실수를 비웃을 뿐 아무도 이것을 나무라는 사람이 없다. 고래로 신을 숭상하는 예절을 가진 국민이 이렇게 일체의 구례를 다 잊어버릴 정도로 대변역을 이루었기에 메이지의 유신이 가능했던 것이지만, 적어도 일체의 예식에 있어서 조금 더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국민은 우리 국체와 큰 관계가 있는 예절을 잊어서는 안 된다.⁴⁷⁾

이 장의 대단원에 이르러 하가는 앞서 말한 만세일계의 국체를 떠받치는 경어와 예의범절의 남루한 모습을 실토한다. ‘수백 년 동안 갈라져 있던 제번의 습관과 풍속이 뒤섞여 예절이라고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하가의 말은, 앞서 교원들에게, ‘일본에서는 아직 말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며 탄식하던 하가를 떠올리게 한다. 지금의 상류사회 사람은, 메이지 유신 시대의 난폭한 시세를 거쳐왔는데, 그 예의에 구애받지 않는 풍모가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우려는, 본인이 그토록 찬양했던 유신의 의의를 무색하게 만든다.

이후, 하가는 1927년 심장마비로 갑작스레 생을 마감했다. 이듬해 그의 유저(遺著)로 출판된 책의 일부는 『国語と国民性』이다. 그는 이 책에서도 ‘국체와 관계’하는 경어의 정신을 논하며, ‘경어를 쓰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품

46) 芳賀矢一(1907), p.227.

47) 芳賀矢一(1907), p.229~230.

위를 떨어뜨린다'며 그 예법을 강조한다. '고래로 신을 숭상하는 예절을 가진 국민'이 '우리나라와 민족의 공손 우아한 언어(我民族の丁寧優長な言語)'와 '예의 작법(禮儀作法)'을 지켜야 한다는 당부를 마지막까지 잊지 않는다.⁴⁸⁾

V. 맺음말

서구의 언어근대화 과정이 속어(vernacular)가 고전 라틴어의 위압에서 벗어나 국가어(national language)로서의 지위와 기능을 획득해 가는 과정이라 한다면, 일본은 서구 근대화를 모범삼아 단기간동안 계층적·지역적 분열을 극복하고, 근대국민국가를 지탱해 줄 '국어'를 창출해 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그런데 메이지 초기 일본의 언어적 현실은 지역과 계층 간의 심한 언어적 분열이 존재했고, 일관된 정서법과 근대적 의미의 문법 체계가 결여된 상태였다. 근대 서양의 국민국가를 근대화의 지침으로 삼았던 일본의 정부와 지식인들은 이러한 일본의 상황에 열등감과 초조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열등감을 극복하게 해줄 처방전의 하나로 재발견된 것이 그들의 '경어'였다.

본고는, 근대 일본의 국문학을 구축하고, 국어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하가 야이치가 쓴 『國民性十論』을 통해, 메이지기 일본에서 경어가 어떻게 국민성과 함께 논의되었는지 살펴보았다. 하가는, 이 책에서 일본인이 전통적으로 중시해 온 예법을 주목하고 경어를 중요한 일본의 특성으로 분석하며, 서양 및 중국과 차별되며 만세불역의 황통에 기초한 국체를 떠받치는 중심축의 하나로 충과 효의 일치를 강조한다. 그리고 천황에 대한 충효의 지정인 '마고코로(マゴコロ)'야 말로 일본 정신의 정수이며, 이는 그들의 경어사

48) 芳賀矢一, 『芳賀矢一遺著 国語と国民性; 日本漢文学史』, 富山房, 1928, pp.22-23.

용 전통에도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가시대의 주종관계에 기인한 번복한 언어와 예절은, 천조로부터 지금의 천황에게까지 변함없이 바쳐야만 할 ‘존숭’과 ‘경신’의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하가는 경어의 기원을 고대 역사서 『古事記』에 기록된 다양한 신의 경칭(敬稱)과 노리토(祝詞), 센묘(宣命)등에서 찾았다. 그리고 이로부터 시작된 경어 사용의 관습이 천황으로부터 점차 일반에게 전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천황제에 접맥되어 있는 하가의 이 경어이론이 그가 개정을 주도한 『尋常小学読本』의 언어사용 용례에 다양한 경어사용으로 이어지고, 학교의 예절교육도 함께 강화되었음을 보았다.

일본 국민성과 경어를 결합하고, 이를 교육의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하가는 근대국민국가 일본이 국민에게 요청했던 예절과 그 규범의식의 내면화에 크게 공헌했다고 할 수 있다. 『國民性十論』에서 본 경어에 대한 예찬은 이후에 출현하는 수많은 경어론에서 ‘일본어의 정화(精華)’로 끊임없이 변주된다. 경어가 천황에 대한 존숭(尊崇)의 발현이자, 국민의 품위와 우미(優美)함을 드러내는 수단이라는 하가의 언명은 지금도 유효하게 일본인의 말과 그 의식 속에 살아 있다. **日本空間**

논문 투고일 : 2020년 11월 10일

논문 심사일 : 2020년 11월 30일

게재 확정일 : 2020년 12월 10일

참고문헌

- 한유선·형진의, 「근대일본어에 있어서 경어의 사회언어학적 고찰」, 『일본문
화학보』, 28호, 2006.
- 荒木博之, 『敬語のジャパノロジー 敬語を考える、日本人を考える』, 創拓社,
1990,
- イ・ヨンスク, 『国語という思想』, 岩波書店, 1996.
- 江藤裕之, 「フィロロギーとしての国学研究：村岡典嗣と芳賀矢一のフィロ
ロギー理解と国学」, 『東北大学大学院国際文化研究科論集』, 第21号,
2013.
- 梶原雄, 「国語に関する世論調査の日韓比較－敬語に対するイメージを中心
に」, 『일본문화학보』, 85호, 2020.
- 国語学会編, 『国語学大辞典』, 東京堂出版, 1993.
- 清水正之, 「芳賀矢一における「日本」の解釈をめぐる：思想史研究と国文学」,
『日本文学』, 第41卷第10号, 1992.
- 滝浦真人, 『日本の敬語論 ポライトネス理論からの再検討』, 大修館書店,
2005.
- 中村紀久二, 『教科書の社会史－明治維新から敗戦まで』, 岩波書店, 1992.
_____, 『復刻版国定教科書編纂趣意書』解説, 図書刊行会, 2008.
- 中村春作, 「敬語論と内なる「他者」」, 『現代思想』, vol.22-9, 青土社, 1994.
- 長嶋弘明編, 『国語国文学研究の成立』, 放送大学教育振興会, 2011.
- 芳賀矢一, 『國民性十論』, 富山房, 1907.
_____, 「国定小学読本編纂の趣旨」, 『帝国教育(復刻版)』, 第328号, 雄松堂
出版, 1909/1988.

- _____, 『筆にまかせて』, 日本書院, 1918.
- _____, 『戦争と国民性』 富山房, 1916.
- _____, 『芳賀矢一遺著 国語と国民性 ; 日本漢文学史』, 富山房, 1928.
- 文化庁, 『国語施策百年史』, 株式会社ぎょうせい, 2006.
- 許南麟, 『祖霊, 家, そして近代の『家族国家』』, 圭室文雄編, 『日本人の宗教と庶民信仰』, 吉川弘文館, 2006.
- 三橋要也, 『邦文上の敬語』, 『皇典講究所講演』, 71号, 1892.
- _____, 『邦文上の敬語』, 『皇典講究所講演』, 72号, 1892.
- 南博, 『日本人論 明治から今日まで』, 岩波書店, 1994/2006.
- 文部省偏, 『文部省調査師範学校中学校作法教授要項』, 1911.
- _____, 『文部省制定小学校作法教授要項』, 1913.
- 安田敏朗, 『帝国日本の言語編制』, 世織書房, 1997.
- _____, 『国文学の時空-久松潜一と日本文化論』, 三元社, 2002.
- 山下仁, 『敬語研究のイデオロギー性批判』, 野呂香代子・山下仁編, 『「正しさ」への問い : 批判的社会言語学の試み』, 三元社, 2001.
- 山田孝雄, 『敬語法の研究』, 宝文館, 1924.
- 渡辺京二, 『逝きし世の面影』, 平凡社, 2005.
- 渡辺浩, 『日本政治思想史[十七-一九世紀]』, 東京大学出版会, 2010.
- _____, 『東アジアの王権と思想』, 東京大学出版会, 2018.

Abstract

The National Traits of Japan and Honorific (*keigo*) Seen in Haga Yaichi's *Kokuminsei jūron* (Ten National Traits of Japan)

Eun-ju, Baek

In his book *Kokuminsei jūron*, Haga Yaichi, a pioneer-scholar of Japanese literature, examines etiquette, particularly, honorific (*keigo*), which Japanese people treasured. As a key tradition that buttressed the *kokutai* (polity) grounded in the unbroken imperial lineage, Haga highlights the Japanese way of honorific expressions nurtured in line with the unity of loyalty and filial piety directed to the emperor. Haga traces the origin of respectful language to the gods who were honorifically mentioned in the *Kojiki* in conjunction with emperors. According to Haga, the speech act of honorific spread from the emperor to the general populace. Haga's theory of honorific was amply reflected in the Japanese textbook for elementary schoolchildren (*Jinjō shōgaku tokuhon*) he played a key role for its revision. In this way, Haga associated the national traits of Japan with honorific and, thereby, contributed to raising the kind of etiquette and morality which the nation state of Japan tried to inculcate to its people – a legacy that has galvanized the practice of honorific in Japan.

Key words

honorific (*keigo*), national trait, Haga Yaichi, emperor system, language education

